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66호 [네마포]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5년 10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디자인로드 www.cor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92 5323

건국르네상스 원년 10년 후 국내 5대 병원으로 성장

머릿글 아주대 명예교수 박돈서

10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국토연구원 원장 이규방

커버스토리 건국대학교의료원 원장 최규완

나의 경영이야기 삼기 회장 이영열

지자체특강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사)서울그랜드오페라단 이사장 이경애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남미문화투어 여행기 삼화비닐(주) 대표 윤백중

리더십이야기 / 조순칼럼

표지인물 최규완 건국대학교의료원 원장 / 사진 오경근 원장

10

2005 October

이 아이의 10년 후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작은 생각을 크게 키워주는 일 -
바로 이 나라의 교육이 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웅진씽크빅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 및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도, 아름다운 가게 후원, 결사아동 후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도사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문화가 밥 먹여 줘?

박돈서 아주대 명예교수



21세기를 특징짓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은 '문화'라는 말이 갖는 개념의 모호함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말이 자주 쓰여 신선함이 떨어지는 데도 원인이 있을 듯 싶다.

여기서는 좁은 뜻으로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때로는 즐겁게도 만드는 인간 활동 분야를 문화라 해 두자.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문화의 모습이 우리 뇌리에 하나의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예술·역사·민속·오락 등이 이런 문화의 이미지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지 않을까.

이미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분야가 앞으로 더욱 사이버화·온라인화 되면 사람 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줄어들고 인간소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추세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정과 체취를 그리워하고, 생산성·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한숨 돌리며 위안 받고 감동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의 필연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의 창출량, 정보의 유통량에 비례해서 문화의 다양화·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의 풍요로움'이 지식이나 정보보다 더 우세할 때 인간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자. 근래 우리나라 영화가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극히 소수를 빼고는 그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본다. 음악에서는 뛰어난 몇몇 연주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교향악단 하나 없다. 미술계는 어떤가. 백남준 말고는 역시 세계미술사에 획을 긋는 미술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으로 큰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예가 거의 없고 국내 프로젝트마저 큰 것은 서양의 거장들에게 내주고 있는 현실이다.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자동차, 전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 문화의 수준은 국민소득과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부유해지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특히 디자인의 질 향상은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그 경쟁력은 다시 디자인에 투자되어 그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건축가 후랭크 게리가 한국에 한번 다녀 간 후 학생들에게 강의 하면서 한국의 도시들은 쓰레기더미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사람의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나 시골 풍경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건물 벽면을 온통 뒤덮고 있는 불량 간판들의 혼란스러움, 전국토의 경관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무질서하고 단조로운 아파트, 농어촌의 풍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울긋불긋한 지붕 색깔. 이런 것들이 모두 디자인 마인드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다.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온 국민의 문화적 안목의 낮음에서 오는 결과이다.

우리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안목을 키우는데 힘써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예산 배정을 더 늘려야 하며, 기업은 디자인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 디자인 개발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문화적 안목을 끌어올리는데 더 투자해야 한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도 문화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다. 그 도시는 광업과 조선업으로 한때 융성했었으나 그런 산업의 사양화와 바스크족의 분리독립운동으로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개관함으로써 그 환상적인 건축과 그 안의 미술품, 그 일대의 재개발에 의한 콘서트홀·국제회의장 건립 등 문화사업으로 일약 세계굴지의 문화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문화가 도시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을 늘리며 국민이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적 저력도 빈약한데다 지도층의 관심과 의지가 약하니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보면서도 별로 변화하는 것이 없다.

나는 지자체의 장이나 각급 학교의 교사들, 기업의 CEO들이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의 공연과 각종 미술전시회 등의 관람을 장려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양서 읽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 하지 않는가. 문화가 경제에 직결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온 것이다. **人間**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0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정태익 외교안보연구원 대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석사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구주정치학 석사 / 駐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 駐라이베리아대사관 참사관 / 외무부 미주국장, 제1차관보, 기획관리실장 / 駐미국대사관 참사관 /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관 / 駐이집트 대사 / 駐이탈리아 대사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원장 /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 駐러시아 대사
<상훈> 흥조근정훈장, 이탈리아 대십자가사훈장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러관계

1422회 10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이후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특히 세계경제 무대에서 중국의 급부상은 향후 국제정세를 논함에 있어 미국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1세기 변영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한반도에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요구된다. 여기에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시 2기 출범과 미·중관계, 최근 일본 선거 후 고이즈미 정부의 방향, 한·미 동맹관계 등을 대함에 있어 동북아지역의 안정된 세력균형 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외교력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체제 이후 극동개발전략과 연계된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개발 전략이 결실을 보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개발전략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0여년을 외무일선에서 활동해온 정태익 외교안보연구원 대사를 초빙하여 동북아 새 질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한·러관계 현황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동완 사주명리학자

동국대 상담심리학 석사 / 현재 세종대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 / 선문대 평생교육원 역학 담당교수 / 세명대 평생교육원 역학·풍수 담당교수 / 서원대 평생교육원 역학·풍수·주역·성명학·육효학 담당교수 / 건국대 평생교육원 역학·풍수학·관상학·주역 담당교수 /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 한국 역학학회 회장 / 한국 육효학회 회장 / 한국 성격 성명학회 회장 / 한국 민족 풍수지리학회 회장 / 한국 민족 주역학회 회장
<저서> 사주명리학 초보탈출

동양 신비의 고전 周易으로 풀어본 성공인생의 비결

1423회 10월 1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한 개인 혹은 한 사회 집단의 운명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여러 가지로 있어왔다. 사주명리학도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사주 이론은 최근 동양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명리학을 그저 타고난 운명을 알아보는 학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운명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주명리학은 미래의 길흉을 미리 알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분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학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사주명리학을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적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여 사주를 보는 사람이 성공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사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 중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잘 살려서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사주명리학의 역할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인 사주명리학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사주명리학 초보탈출>의 저자 김동완 사주명리학자를 초빙하여 주역으로 풀어보는 성공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들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 의학과 졸업 / 서울대 의학 석·박사 /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사 / 한국노화학회 회장 / 한국 분자생물학회 산학협동위원장 / 한국과학기술원 전문평가위원 / 국제노화학회 회장 / 제4대 한국 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 영국 '노화의 원리' 선임편집인 / 서울대 의과대 체력과학노화연구소 소장

〈상훈〉 과학기재단 올해의 과학자상, 과학기술처 장관 우수과학자상, 금호학술재단 학술상
〈저서〉 생명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복제인간과 구인가 사실인가, 건강보다 참된 것은 없다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健康人生의 길

1424회 10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희망이다. 로마제국시대의 평균수명은 25세,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34세, 19세기 말에는 45세였다. 현재 세계 평균수명은 80세 안팎으로 우리나라는 1930년대 31세에 불과했지만 2002년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75.5세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130세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화현상은 인체에 일어나는 물리현상에 불과해 앞으로 의약품 효능이 좋아지면 노화현상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의 힘만으로 장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수명을 건강하게 보전하려는 노력과 삶에 대한 태도가 장수비결의 근본이 될 것이다. 세계 최장수국 일본의 오키나와현은 10만명당 100세 인구 비율이 39.5명으로 이곳의 장수인들은 지방과 소금기가 적고 균형 잡힌 소식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수 노인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낙천적으로 생활한다는 점,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음식을 크게 가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100세 장수 노인들의 연구'를 개척한 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를 초빙하여 일상의 건강관리법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 美 유타주립대 사회학과 졸업 / 美 텍사스A&M대 사회학 석·박사 / 한국 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기획본부장 / 송실대 정보 사회학과 교수, 학과장 / 송실대 사이버연구센터 센터장 / 정보통신부 정책평가 및 심사위원 / 국무총리실 정보화 평가위원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위원

〈상훈〉 대통령표창, 캄보디아 국민훈장 표창
〈저서〉 정보사회와 정보문화, 인간과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는 성공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

1425회 10월 2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미래 첨단기술을 대변하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이로 인해 사람과 컴퓨터, 사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말과 표정만으로 모든 사물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유비쿼터스는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정보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혁명이 인류문명의 기반인 물리공간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유비쿼터스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공간혁명'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공간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 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빈부와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보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소외계층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의 정보격차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손연기 원장을 초빙하여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망해보고 정보격차 등 부작용의 해소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균형발전과 한국사회의 비전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제141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9월 1일(목) 롯데호텔 36층 뽀뷰룸



수도권 집적의 이익에 따른 과밀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일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 및 100대 기업의 80~90%가 서울에 집중해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은 정치·경제·문화 등 권력의 모든 중심이 수도권에 쏠리는 문제를 야기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서울만을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되었고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성공을 이뤄 사회 상층부에 들어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목표로 한다. 이는 지방 도시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전 국토의 절반이 낙후지역
현재의 국토구조로는 경쟁력 발휘 못해**

우리나라 국토를 보면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중 낙후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들의 고향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의 인구와 현재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농촌에서는 얘기 울음이 끊긴지 이미 오래이다. 오죽하면 60대는 청년이라 하여 마을 이장으로 일할 정도이다. 이런 낙후지역이 얼마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런 낙후지역이 전 국토면적의 48.8%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또한 국토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고작 전 국민의 7.4%에 불과하다. 국토의 상당부분을 거의 방치해 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라의 절반은 낙후지역이고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지역에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다. 이러한 국토구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토가 가지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로, 낙후지역은 발전기회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낙향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호남이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낙후된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이 현재의 한국이라면 호남은 방글라데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보니 기반이 부족한 지방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자신들의 지역에 국가 프로젝트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지역이기



주의로까지 번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불균형이 사회통합 더 나아가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는 개별국가에서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의 네트워크사회로 발전

사회통합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연구해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경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세계화, 정보화 쪽으로 가면서 우리의 경제운영 또는 경쟁력 원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의 시대이다. 정보화는 우리 사

회와 경제 활동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세계화,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수직적인 체계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갈 것이라고도 적었다. 사실 세계화, 정보화가 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수직적인 생산 및 경제구조여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에서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정보의 배분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네트워크 사회는 앞으로 우리의 행동양식과 경쟁력의 원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세계는 앞으로 개별국가에서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화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조건이 크게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쟁력의 원천은 어느 한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경쟁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이라 함은 그 지역의 자원, 산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미지, 어메니티(amenity)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자원을 있는 그대로의 전통적 자원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쪽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시대로서 리더는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품으로서의 역할만을 해왔다. 또한 중앙집권체제로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디자인과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정보의 홍수라 할만큼 정보화를 이룬 지금은 네트워크형 사회를 이루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나 경쟁은 어렵게 되었다. 역할과 책임이 분담된 수평적인 사회에서 네트워크로 서로 연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여건의 변화, 국토의 불균형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이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주요전략 5가지를 마련했다. 첫째는 다액분산의 국토이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의 집적이익은 곧 국가이익으로 이어진다.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만한 국제경쟁력과 여러 가지 집적이익이 나오는 도시가 적어도 2~3개는 더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방 경쟁을 하려면 혁신형 국토가 되어야 한다. 혁신이라 하여 굉장히 거창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혁신을 보면 우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장 노동자로부터 70% 이상의 생산성효과를 볼만큼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 주변부터 시작해서 기업으로 연결하고 지역으로 끌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혁신형 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

방의 자원이나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발전계획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전부 서울을 쫓아한 것들만 내놓는다. 지방만의 차별화가 없다. 발전 전략 또는 새로운 집중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서로 자기끼리만 얘기하면서 바깥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폐쇄적인 문제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서 혁신형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는 우리가 가지는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이 세계로 향하는 관문으로 보인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를 중국과 러시아의 끝에 붙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것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태평양과 인도양을 향해 뻗어 가는 스페어헤드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권력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 가지는 집중력과 흡인력을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난 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펼치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공장 설립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내걸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서울로만 모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서구화된 계약사회가 아니라 대면접촉이 중요한 나라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모두 서울에 있는데 누구라도 아무 것도 없는 지방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출선수범 하겠다며 먼저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위헌이라 하여 무산되는 바람에 대신 12부4처2청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정치와 경제 권력의 일부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방 사람들의 서울로만 향한 눈길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산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에 따른 사고방식의 변화는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예정지역이 다 고시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일의 추진은 내년 1월 1일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이 발족한 뒤가 될 것이다.

현재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전남과 전북의 인구만 보더라도 2백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수도권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각지에 흩어 놓고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발전의 펌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16개 시·도에 배분해 놓은 상태이다. 좋은 케이스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오송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독성연구원이 들어가면서 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로 기업연구소가 따라 들어가고 충북대 생명과학대학의 분원캠퍼스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내려간 것을 기초로 해서 관련 연구, 기업, 제약회사가 들어가면서 오송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렇게 오송의 산·관·학·연의 복합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일이다. 앞으로 네트워크 사회가 되면 산·관·학·연의 교류협력을 통한 시

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혁신도시는 무의미

공공기관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연구하다 보니 혁신도시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사실 혁신도시는 산학연이 모여 활발히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서로 이끌어 주면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스웨덴의 올라를 보면 신기술과 산학연이 뭉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도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통 도시라 하면 인구 오십만, 백만 명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때그때 규모에 맞게 혁신 도시를 만들거나 기존 도시에 붙여 만들 수도 있고 기존 도시의 일정 공간에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혁신도시이다. 혁신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과 주변기관이 입지하면 이를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도시와 서울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를 굳이 지방에 만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규제완화제도를 만들기 전에 특정 공간에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없는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고 그로 인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또한 기업투자의 활력과 성장률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의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수도권에 추진하려 했으나 이미 서울은 과밀집중으로 포화상태라며 반대했다. 결국 여러 가지 견제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은 변질된 감이 없지 않다.

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성이 바람직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내 기존 부존자원을 보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 기안을 올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처음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IT, BT, ET, NT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서로 조정하는데 애를 먹었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IT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각각 특화시키면서 네트워크로 협력해 나갈 것을 권하면 전부가 아니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혁신 클러스터도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협력이다. 지금은 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오래 있다 보니 건설업을 많이 연구하는데 아직도 선비우위 사고방식이 있음을 느낀다. 일반사람들이 보면 다 같은 노동자인데 그들 안에서는 나름의 계급과 지위로 서로를 구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다 보니 시너지가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융합되고 뒤집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연구단지를 혁신 클러스터화 하는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대학연구단지 특구를 만들어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같이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창원, 울산,

구미, 안산, 원주, 군산 등 7개 공단을 클러스터 작업에 포함시켰다. 이 공단들에는 생산시설밖에 없어 연구시설을 집어넣고 교류를 통한 현장의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기존산업에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클러스터끼리 서로 협력해서 상호 보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명한 실리콘밸리라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듯이 지금의 7개 공단과 대덕연구단지 또한 클러스터화 되더라도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발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5일제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통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이동이 편리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가 된다. 인프라의 질을 위해 보는 것이 speed, reliability, amenity인데 앞으로는 이런 쪽의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간선망의 인프라, 지역간의 인프라만이 아니라 지역 내의 인프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는 고급인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급인력들은 살기 편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지역경쟁의 핵심은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으로는 인프라가 잘 형성되었지만 동서로는 취약한 편이다. 그래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진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낙후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궁리하다가 농촌의 어메니티를 살리는 방안을 생각했다. 주5일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경우가 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또한 간선망이 잘 되어 있어 차로 3시간이면 못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휴가는 외국으로 가고 예전에 휴가지로 갔던 곳은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는 풍속도가 생겨났다. 이러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만든다면 주말에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 농촌소득을 올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도시는 자본, 정보, 인력을 농촌에 주고 관광을 해주어 수요를 창출하고, 농촌은 자연환경, 휴식공간, 관광, 건강농산물 등을 도시에 제공하는 Win-Win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분권

현재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지방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타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보기에 아이디어가 미흡하다 싶으면 전문가나 조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자립적 지방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자립적 지방화를 하려면 지방 스스로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분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지방에서는 아무리 분권해봐도 소용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인사권, 재정권이라고 말한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지방에서 먼저 우선 순위 사업을 정하게 한 뒤 각 부처에서 주는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묶어 놓는다. 그리고 지방 계획을 봐서 제일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에 돈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분권을 도모하는 자금을 두는 것은 지방 스스로 자립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고 조직, 문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사회의 개방이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지역배타주의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다. 둘째,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나 지역균형발전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지역사회 리더들이 먼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실감하고 솔선수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더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득해 점차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리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어떻게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조직화시켜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해 조정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변화의 역군이 되는 이러한 리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는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과 협력 그리고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人間**



건국르네상스 원년 10년 후 국내 5대 병원으로 성장

최규완 건국대학교의료원 원장

"대학병원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10년 안에 건국대병원이 국내 5대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형병원 못지 않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최규완 건국대의료원장의 힘찬 포부이다. 최 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노태우 전 대통령 주치의를 거쳐 삼성의료원장을 역임한 뒤 건국대 의료담당 상임이사로 부임해 건국대병원 건립과 개원 준비를 진두 지휘했으며, 개원과 함께 병원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건국대의 15년 숙원사업이었던 건국대병원이 지난 8월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2002년 착공 후 4년만에 완공된 건국대병원은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 5천평에 870병상 규모로 중견병원이지만 각종 장비를 최신 기종으로 도입해 최첨단 디지털병원을 구현하였다. 이로써 건국대는 의학 전문대학원 출범과 의생명과학연구원 건립 등 진료·연구·교육 각 분야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건국대는 2005년을 '건국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여 의료 역량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병원경영에 전념하면서 은퇴 후에는 삶이 허락하는 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최규완 원장을 만나 새롭게 출발하는 병원 소개와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최규완 원장 1937년 생 /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 의학 석·박사 / 美 미시간대 이학 석·박사 / 美 미시간대 의과대학 연구원, 미네소타대·로체스터대 의과대학 객원교수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대한유전학회 회장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 노태우 전 대통령 주치의 / 대한소화기병학회 회장 / 삼성의료원 원장 / 대한내과학회 회장 / 서울대 명예교수 / 건국대 의료담당 상임이사

그 동안 병원건립과 개원 준비를 진두 지휘해오셨는데요.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며, 취임 소감과 함께 병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삼성의료원장에서 물러나면서 건국대로부터 재단 의료담당 상임이사 직을 제의 받았습니다. 예전 민중병원, 건대충주병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연구원 등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사실 민중병원은 1931년 상허 유석창 선생이 가난한 환자를 위한 구료 기관으로 '사회영 중앙실비 진료원'에 그 뿌리를 둔 오랜 역사를 지닌 병원으로 이번 건국대병원 개원은 건국대의 15년 숙원사업을 이룬 셈입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껴요. 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동안 교수초빙에서 의료진 구성, 의료기기 도입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도 건대충주병원 등 건대의료원 모두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002년 착공 후 1800억원을 들여 4년만에 완공한 건국대병원이 지난 8월 1일 개원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 5천평에 870병상 규모의 건국대병원은 총 31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화기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호흡기센터 등의 전문센터가 운영됩니다. 특히 건국대병원은 2002년 1차로 21명의 정예 의료진을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간 질환의 권위자인 이창홍 박사를 포함해 66명 이상의 정상급 의료진을 초빙했어요. 뿐만 아니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의료진에 대해 국내외 장단기 연수를 시행하는 한편 젊은 의료진을 다수 구성해 가까운 미래에 병원을 책임지게 할 계획입니다.

건국대병원이 추구하는 타 병원과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또 향후 경영전략과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건국대병원은 중견병원이지만 대형병원 못지 않은 치료수준과 환자수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31병상을 갖춘 단기입원 전용병동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것이며, 최장 3일까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입원과 퇴원 수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통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적극 흡수하는 요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의 역사와 병원 로비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병원 방문이 한층 편리해진 것이죠. 또한 건국대병원은 PET/CT, MRI, CT, 디지털심장혈관조영장비, 진단검사전자동화시스템, 각종 핵의학장비와 치료방사선장비 등 모든 의료장비를 현재까지 개발된 최신의 디지털 기종으로 도입하여 최첨단 디지털병원을 구현했습니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앞서 말씀드린 4개 전문센터에서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치료를 특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시니어타워에 노인요양시설을 갖추고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죠.

이렇게 해서 건국대병원은 향후 3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대학



▶ 8월 1일 개원한 건국대병원

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10년 후에는 국내 5대 병원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건국대는 지난 5월 15일 개교기념일에 2005년을 '건국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여 최고수준의 병원으로 도약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병원뿐 아니라 의생명과학연구원 등 연구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건국대병원이 10년 후 국내 5대 병원에 진입한다는 것은 진료·연구·교육 각 분야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의학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을 출범시켰으며, 병원 바로 옆에는 의생명과학연구원이 2007년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생명과학연구원은 의학 분야와 수의학, 축산학, 농학 등 생명과학 분야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요람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체지방 교수를 연구원장으로 영입해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 교수들이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 연구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동안 서울대 의대 교수부터 대통령주치의, 삼성의료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앞으로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1961년에 의사가 됐으니 의사가 된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후진들을 위해 물러날 줄도 알아야겠지요. 그래도 만 70세까지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는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헌신할 생각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디에 속한다기보다



▶ 지하철 2, 7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병원 로비

는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의료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계의 소외지역을 찾아 삶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의사로서의 가장 보람된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언제입니까.

의사로서의 보람이라는 것은 환자가 병이 낫고, 의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도 그 동안 환자들 중에 사회 저명인사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그들에게 의사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린 덕분에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과의 친분을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자칫 '자기 아니면 그 환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로서 위험하고도 교만한 생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 건국대병원 지하층 로비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류유전학을 공부해 다시 박사학위를 받았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은 DNA, 줄기세포 등이 보편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유전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로 많은 후배, 제자들이 유전학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제가 임상 의사가 되는 길을 택하긴 했지만 학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원장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간직해오신 좌우명이나 인생관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크리스천으로서 서울대병원 기독교봉사회 회장, 서울기독교사회 회장, 한국기독교사회 회장 등 외형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으면서 환자들 돌보고 하다 보면 봉사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마련이죠. 요즘 젊은 의사들 중에는 의사로 교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세계의 오지로 의료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바탕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보건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발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정책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늘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도 의료, 교육분야는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에요. 사회복지나 국민 전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준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언제나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국가에서 계획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서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무엇보다도 중시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원한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위화감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사보험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폐쇄화되고 세계 개방화시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의료시장 기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의학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가가 최대한의 사회보장 책임을 지면서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와 그 기능을 인정해야 의료계 전반의 체질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경영자연구회 및 각종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인간개발'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십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인간개발에 대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언젠가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삼성이 모든 면에서 후자경영

을 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삼성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삼성은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근희 회장의 속뜻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인재개발,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삼성을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끌어갈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병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지만 병원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며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죠. 또한 모든 의료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정신력과 철학이 있어야 의사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늘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나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가끔 강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만 의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 그만큼 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절주와 금연은 반드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는 건강한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스를 즐겨했는데, 경기 도중 큰 부상을 당한 이후로 힘든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골프장을 찾는데 주위 동료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자연을 벗삼아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걷는 운동량도 만만치 않아 즐겨하고 있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인턴시절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둑은 그 동안 실력이 꾸준히 늘어 아마5단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둑은 흑과 백이 대립하면서도 조화롭다는 점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연구원의 이념에 적극 동참하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생소하던 인간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어려운 고비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인간개발 연구원의 노력과 열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확한 맥락을 짚고 30년을 꾸준히 이어온 것은 연구원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이끄는 리더가 있었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원은 우리나라 많은 CEO들의 경영철학을 재정립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나온 30년의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기업발전의 근간 '신기술 보호'

이영열 삼기 회장



'뛰어난 내구성, 탁월한 투수기능, 저렴한 가격, 아름답고 선명한 색상...'

그 동안 햇빛 도시의 상징이던 검은색과 회색의 도로가 아름답고 선명한 칼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 지난 93년 신개념 포장재 '칼라콘'을 개발해 투수성 콘크리트의 신기원을 개척해 온 지도 어느새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아이템 하나로 시작했던 사업이 그 동안 축적된 투수기술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수자원 보호에 일조하는 환경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기업경영의 철학

'자연과 호흡하는 제품을 통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맑은 공기와 수자원 보호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보전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해왔다. "창의와 열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축적된 노하우로 미래를 준비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신소재·신공법 개발에 앞장서자. 그 중심에는 고객이 있으니 그 소리에 귀 기울이자."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환경친화적 제품을 개발하는 초일류

환경포장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숱한 시련과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업계 선두를 지켜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수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사업 시작

우리 삼기는 쏟아지는 빗물을 하수로 방출하지 않고 지면으로 바로 흡수해 주기 때문에 홍수의 범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인 '칼라콘(칼라투수콘크리트)'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시공하는 회사이다. 근래 들어 버려지면 환경공해물질이 되는 폐폴리우레탄을 재활용한 칼라탄성포장재인 '쥬이콘'사업도 병행하고 있지만 역시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칼라콘이다.

칼라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수자원의 활용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였다. 군 제대 후 시작한 도로 포장업체의 현장 소장시절, 한번은 지하차도의 하수도관 교체공사 중에 갑자기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다.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해 자동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수도에서 거꾸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도로가 조금이라도 물을 흡수할 수만 있었더라도 이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그렇게 급방 도로가 차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한 번은 남산 남영동 부근 급경사로의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져 골목 전체가 수로로 변해 급류가 되어 밀려오는 물살과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분수처럼 치솟는 물에 큰 피해도 입었고 무엇보다도 홍수와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실감했었다. 그 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 잡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해서 투수성 포장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홍수피해도 물론이지만 갈수기에 지면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영원할 것 같던 지하수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우리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가 됐다는 점이다.

한번은 제주도에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설명을 마친 뒤 제주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용암이 식어 형성된 현무암 지반으로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다. 빗물이 지하로 제대로 흡수된다면 양질의 음용수 자원이 되는데, 그 물들이 다시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모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물들이 지면으로 다시 흡수되면 그것이 곧 자원이고 돈인데 모두 하천으로 버려지는 꼴이 된다'고...

기술도둑이 국가경제 좀 먹는다

이영열 회장 1954년 생 / 아주대 토목공학과 졸업 / 서울대·중앙대·한국외대·동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서울시 강남구상공회의소 부회장 /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평가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강남구지부장 / (사)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 영동세브란스병원 근육병재단 이사 / (사)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 양재천 산책로



▶ 광진교 인라인장



▶ 모로코와 업무협약



▶ 호수공원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을 해 놓고 나니, 후발업체에서 너도나도 유사한 특허나 말도 안 되는 특허를 받아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칼라콘 기술로 시공하는 일이 비밀비재하게 되었다. 이 보다 더 힘든 점은 삼기의 특허제품인지 알면서도 권한이 없는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발주처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인, 특정기업의 기술이라 하여 사용을 꺼리는 공공기관의 풍토는 새로운 기술 개발 의욕에 찬물을 끼얹었고, 특히나 신기술 제품의 우선 수의계약 구매를 장려하는 법령이 있지만 민원제기를 의식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자 및 그 기술의 보유업체를 안타깝게 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 칼라콘 개발과 시장개척에 오랜 시간과 정열을 바쳐온 당사자로서 너무도 답답할 따름이다.

또한 아직도 수년간의 피땀과 자본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양심도 없이는 하나 깎짝하지 않고 복제해 자기 기술인양 사업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삼기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불법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산 넘어 산이었고 지금도 이로 인한 법적 문제로 꽤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그 누구라도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과 시장을 아무에게나 뺏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관련 소송은 사법기관이 전문화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간이 길어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당하는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그 동안 특허기술을 무단침해 받으면서도 '사필귀정'을 위로 삼아 참아왔던 인내의 한계점도 나와 우리 회사를 모함하는 집단들의 집요하고 치밀한 계약에 의해 칼라콘의 특허가 무효화되면서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선진국처럼 기술에 대한 보호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신기술개발을 위해 자신의 돈과 땀을 투자하며 시장개척을 위해 고생하겠는가. 기술침해는 정말 무서운 도둑이며 지적자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단기적으로는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투자나 시장개척의 의욕을 꺾어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

가경계를 좀 먹는 것이다.

진정한 블루오션이 필요

요즘 상생이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투수포장업체에서도 상생이 필요하다. 특허 받은 기술을 정당하게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잘 알면서도, 좀 앞서간다 싶으면 쓰러뜨리지 못해 안달이 나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는 투수포장산업도 지금까지 유행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남이 가지 않은 경쟁 없는 푸른 바다를 향해갈 때이다.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기반한 시장공략 등 과실의 크기를 키우는 포지션 게임을 통해 서로 성장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해외진출과 신기술 보호정책에 주력할 것

국내사업에서는 친환경 신제품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곧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해외로 보급하는 것도 큰 목표중 하나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사를 통해 진출속도를 더욱 가속화해서 내년에는 미국에 칼라콘과 조이콘이 시공될 것이다. 한편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척을 위해 기술이전 등 사업방향의 협상도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한 수요를 기점으로 중국 대륙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며 조만간 중국시장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지는데 따른 산적한 과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내 평소의 소신이 '국가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기업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더욱 기술력 증진에 노력할 수 있을 것'이기에 협회 회장으로서 신기술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 정부와 각계 기관 그리고 회원들 사이의 가교역할 등 큰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각오를 다져 본다. **人間**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 / 9월 15일(목) 장성군청 대회의실



본원은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지방자치발전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주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1995년 9월 개강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장성군과 본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부,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등이 후원하는 장성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이 지난 9월 15일 장성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지역주민 및 관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장성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의 부문별 발표를 요약해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기 / 조 / 강 / 연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것과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지역단위마다 미시적 차원에서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지방자치가 기

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바람을 각 지자체가 다양하게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독창성 있는 발전계획을 세워서 시도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도 그렇겠지만, 주민 공청회나 주민 자치활동 등 주민들이 꿈틀거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방자치제도가 기여했다고 평가해봅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방분권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지방의회,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이 상당한 사회적 위치와 권한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정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이 자율성을 확보하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미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역량 신장 면에서는 내부역량, 즉 군청이나 도청을 움직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인접 시·군과의 협력관계는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고 지역 내에서도 집단민원 등 대처방법이 효과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설문에서 68%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 증진되었다고 답했으며, 3.7%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 제일 부족한 분야가 보건 복지 분야입니다. 주민의 보건·위생을 개선하는 문제, 장애인 복지 개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전·정비하고 관리하는 분야, 도시화에 따른 도시관리, 쓰레기 처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움을 줬는가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습니다. 지역경쟁력 부분에서 특히 해소되어야 할 분야가 지역격차입니다. 농촌과 도시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견제, 감시역할도 취약한 모습입니다. 또 주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제도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선심행정, 정치성행정, 일부 단체장의 독선에 의한 문제가 불어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 개발붐이 일고, 인허가권이 남용됨으로써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양상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개별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전국적인 이목을 끄는 지역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장성이 마음의 성을 완전히 열고 다른 지역과 결합함으로써 결합 에너지를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성이 외부로 문을 열고 외부의 장점을 받아들여려고 한 것이 오늘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이카데미는 적은 비용으로 외부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문별 주제발표〉

지 / 방 / 자 / 치

향후 지방자치 정책방안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지방자치발전의 7가지 방향을 설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방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방화라는 것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준말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도 세계적인 협약에 입각해서 자치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



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권한 중에서 지방이 해도 될만한 일은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자율권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책임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능력과 역량을 개발해서 향후 10년은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및 참여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생산성 강화입니다. 지방의회가 내년 7월 이후에는 유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거 운영방법을 떠나 유급제 하에서의 지방의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10년간의 자치발전 7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의무부과를 할 수 있고, 벌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치계층 및 행정구역의 합리화 도모입니다. 현재의 시·도, 시·군·구 계층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간 합리적 기능조정 및 역할 분담입니다. 이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재배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시·도에 이양해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의정의 획기적인 발전도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급제 하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누구에 의해서든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 / 방 / 행 / 정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과 정책과제



저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한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는 분권이라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고, 자치단체 내부와 주변 자치단체의 관계는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참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권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은 아직도 국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잘 된 것이라면 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수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지방이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못 주는 자치단체가 95년도에 61개에서 지금은 41개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성을 확보해 주었다는 것과 행정혁신의 노력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남아있고, 갈등해소 역량이 부족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은 참여의 문제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화되었다는 것 자체를 성과로 봅니다.

최근에 평가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은 어느 분야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즉,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역할의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이고 이웃간의 관계입니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아닌 인센티브가 가미된 평가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간의 삶의 질이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스스로 변해야 산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주체는 구성원 모두로서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상생과 협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 / 방 / 분 / 권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과 지방관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화·분권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방의 반란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2년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있었는데, 지방자치 하면서 주민의 복리 만족도가 36%이고, 불만족이 13%로 만

족이 3배 이상인데 주민불만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해석은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이 부처로 가면서 왜곡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을 199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법분권이 거의 안되어 있고 사법분권은 논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권의 최종 기착점은 사법분권입니다. 여기 지방 의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입법분권이나 행정분권이 잘되어 있습니까? 장성군의 경우 여러 가지 지역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하지만 분권의 제도적 화해에 대해서 군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고 싶습니다.



분권은 당연히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분권 문제는 국가나 지방 누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군으로 오고, 주민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우리도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분권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위주로 정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선 지방을 믿고 분권을 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라는 선분권, 후보완 원칙은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일어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을 위해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권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또한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분권은 유명무실합니다. 이것이 현주소라는 것을 모두들 깨달아야 합니다.

지 / 방 / 경 / 제

지역관광개발의 과제와 발전전략

최승담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이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85%가 관광개발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사실이지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나 관심만큼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나라 관광개발여건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장점 같지만 오히려 사계절 때문에 영업일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의 경우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동해안에 해변벨트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정도 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데도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막연하게 우리지역에 산과 계곡, 바다가 있으니 개발하자고 해서 낭패를 본 사례가 많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중심적 사고입니다. 지역중심, 지역자본, 지역인재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100전 100패라고 봅니다. 관광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부재로 관광이 관광을 파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지의 환경이 나빠져서 관광지로서의 유인력이 떨어져 망치는 사례가 있고, 환경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규제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사례가 자원성 중심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자원성 중심개발보다는 시장성 중심개발로 가야합니다. 시장성 중심이라는 것은 관광입지를 선정할 때 자원이 아름다운가도 생각해 하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간투자유치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 220개 지정관광지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해봤더니 계획대비 조성실적,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 실적이 계획대비 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1%는 계획만 했고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용역은 발주는 많지만 기초통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관광객 숫자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가 부족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중심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광역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역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관광 쪽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역은 거점형태로, 지역 중심의 소규모 관광지들은 거점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소규모로 분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성은 이미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 / 역 / 발 / 전

장성의 사회적 자본

소진광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발전이라는 것을 의·식·주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간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발전, 만족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출발을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영원히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보다는 활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뢰, 믿음이 있어야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이고 참여를 해서 책임을 높이고 공동으로 투

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소유가 아닌 활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자본(personal capital)의 대칭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통 자본들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될 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의 관점에서는 1억원을 가진 사람이 3억 원을 가진 사람에 비해 1/3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1/3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즉 신뢰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전 강연에서 설문지를 받아 정리했는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표는 지역사회마다 달라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역적 특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장성에 적용해서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체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면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와 장성군에 관한 신뢰도에서 장성군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신뢰도, 특히 배우자에 관한 신뢰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60% 정도이고 2.5% 정도는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참여단체 유형 등의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평균소득이 높으면 봉사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정책수단이 한눈에 보입니다. 전통적 자본의 관점에서 평균 미달이 나오더라도 장성은 사회적 관점에서 어느 곳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人間**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들의 삶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지난날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군사대국의 힘을 강화시켜 가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면서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

오늘의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고대 로마에 이런 속담이 있다. "평화를 이룩하고 싶으면 전쟁에 대비하라." 고대 로마인들은 세계적인 로마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제국 내에서는 정복해서 흡수시킨 여러 민족과 문화의 반란이 있었고, 제국 밖에서는 주변의 야만족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다. 제아무리 강대한 제국이지만 제국의 유지와 안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날의 소련이 무너진 이후 천하를 통일한 미국이 9.11테러사건 직후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군사대국, 경제대국의 미국은 정치대국으로서 테러로 미국을 위협한 적대국가들과 전쟁을 벌였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전쟁을 했고 이란과 북한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짓고 전쟁의 위기를 조성해온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재집권한 부시의 리더십이 예상과 달리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서의 말이 깊은 뜻을 더해준다. 간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행동하는 일은 결국 모든 사람을 장님으로, 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뿐이라고 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늘의 세계는 너무나 작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시대착오적인 접근법, 역사의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야 할 구식 접근방법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한다. 로마 교황도 전쟁은 국가정책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세계평화운동과 지속 가능한 지구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클럽(회장 어빈 라즐로)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전쟁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4일~9월 4일까지 우리 연구원 회원들과 함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4개 자원대국을 자원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다녀왔다. 1500년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시대를 거쳐 1800년대 나폴레옹의 유럽정복의 결과로 수 개국으로 독립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미 자원대국들이 지난날 변영의 시기를 지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최근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자원개발을 경제적으로 강점 당한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빈곤의 문제는 남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UN의 추정에 의하면 1년에 190억불만 투자하면 지구상에서 기아와 영양실조를 퇴치시킬 수 있고, 210억불을 투자하면 세계의 무주택자들에게 삶의 처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100억불로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고, 70억불로 산림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80억불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10년 동안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나아가서는 테러범들을 죽이고 적대적인 국가와 비협조적인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안정과 평화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20세기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21세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좁혀진 지구촌에서 지구공동체에 속한 지구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Glob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풍요하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지구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나라는 국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보다 인간다운 국민이 되도록 인간존중의, 인간중심의 국가발전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지구공동체(Better World)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인간혁명의 시대이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빈부격차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강한 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그 국민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려면 먼저 국민 개개인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잠재력을 통찰하고 이를 빠르게 개발하여 자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왕성한 인간 자본 체제를 펴나가야 한다.

진리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데 있는 법. 전쟁이 없고 평화가 정착된 풍요한 지구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지구시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될 수 있음을 믿자.

Better People Better World! **人間**

음악과 사회와의 관계

이경애 (사)서울그랜드오페라단 이사장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암울했던 일제시대와 전쟁을 심하게 겪은 후 생존에 허덕이며 삭막하게 살고 있을 때에도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던 우리 민족은 몇몇의 선구자적인 인물들로 인해 민중들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우리는 음악, 미술, 문학, 무용 등을 총체적인 표현으로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술에 있어서 음악은 민중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다.

음악은 대중들을 문화적으로 선도해 나갈 뿐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전시대의 유명한 작곡가인 W.A. Mozart는 그의 '피가로의 결혼'과 '돈 조반니' 등과 같은 오페라를 통해 그 당시 귀족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였으며, 이태리 오페라의 거장인 G. Verdi는 '에르나니' 등 그의 오페라를 통해 독재를 비판하여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시민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까이로는 한국의 독재시대에서도 많은 민주운동가들이 음악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민주주의를 계몽하였다.

이처럼 가장 가까이 또한 밀접하게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스며들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혹은 퇴보하고 타락하게 하는 도구로써 음악과 같은 도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술과 문학의 사조와 맥락을 같이하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의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에서 음악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은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을 막론하고 지식인들과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생활을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고전과 낭만시대의 음악은 현재의 대중음악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음악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지만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을 점점 거칠게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클래식음악은 심리학자나 음악가, 의학자들이 연구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병든 몸과 정신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대중음악은 인간의 생각과 정신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와 같이 음악은 이 사회를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알고있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보다는 음악이라는 요소를 하나의 장식품이나 혹은 어려워 접근할 수 없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 그리고 음악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인해 음악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고 풍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독일이나 여러 유럽의 문화선진국들을 보면 경제보다 예술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예술과 예술인들을 후원하여 정신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써 나라와 사회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바탕 위에 경제를 쌓는다면 이 사회와 나라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이철수)**는 지방 공기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본부장·팀제를 도입하고 조직을 사업본부 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경영혁신을 지난 9월 1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본부장제 및 팀제 도입에 따라 복수직급제가 확대되면서 '1직급 1직위제'가 사라지고 사업본부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 계획·설계·보상·시공 등의 공정 전 과정을 사업본부별로 책임시공하게 된다.

•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 농업협동조합기구(ICA)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1951년 설립된 ICAO는 세계협동조합연맹(ICA) 분과기구로 세계 38개국 48개 농업 및 농민 관련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농업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 **기업은행(강권석 행장)**은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26일~10월 5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완전개방형' 채용방식을 통해 100명의 신입행원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외국어 성적, 전공, 연령제한 등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학력제한까지 없애 지원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다.

• **심갑보 삼익LMS(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9월 20일 "지식정보화시대, 고객만족경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9월 21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마상곤 (주)협운인터내셔널 회장은** 지난 9월 17일에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조선일보사에 기탁하였다.

• **한국아쿠르트(김순무 사장)**는 칼국수 면발에 얼큰한 김치맛을 내는 '빅3 얼큰 시원 김치 칼국수'를 21일 출시하였다.

• **유한양행(차준근 대표이사)**은 지난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레바넥스' 제조 허가를 받았다. 레바넥스는 94년부터 11년 동안 40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9번째 국산 신약 개발이다.

• **유한김벌리 문국현 사장은** 지난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주)코리아나 화장품 유상옥 회장은** 네 번째 경영 수필집 '문화를 경영한다'를 출간하였다.



• **태창가족(김서기 대표이사)**의 생맥주전문점 쫄쫄쫄(중국 브랜드명 走吉走吉)는 지난 9월 8일~10일까지 상하이 광다전시장에서 열린 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에서 첫 가맹점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였으며 올해 안에 선전에도 직영점을 출점키로 하였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은** 중동 카타르국(Qatar) 정부초청으로 수도 도하(Doha)를 9월 8일~15일까지 방문하여 그 나라의 국왕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가졌다.

• **한국청년기업협회 장재완 회장은** 중국 강소성 상주시 상호투자환경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

- 일 시 : 11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 장 소 :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
- 참가안내 : 전화 02-3487-9199 / 팩스 02-3487-9190

♣ 회원사 정보변경 안내

• **디지솔루션 → 로고시스템(신재철 회장)**
· 전 화 : 02-558-6219 · 팩 스 : 02-561-3733

• **대한스위스화학 → 로터스힐(최만식 회장)**
· 전 화 : 051-851-8250 · 팩 스 : 051-866-5172

• **BIG DREAM & SUCCESS 사무실 이전안내**
· 일 자 : 9월 21일
· 새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HUB B동 402호
· 전 화 : 02-774-3230 · 팩 스 : 02-757-3230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다산	윤영상 회장	(10월 1일)
(주)삼천리	이만득 회장	(10월 1일)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회장	(10월 1일)
성부트레이딩(주)	차진영 사장	(10월 1일)
삼부해운(주)	김태인 회장	(10월 2일)
(복)해동재단	장찬기 회장	(10월 2일)
한신전선(주)	김영재 회장	(10월 10일)
흥안실업(주)	탁재용 회장	(10월 15일)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10월 16일)
엠에스씨코리아	강관유 사장	(10월 22일)
현대교역(주)	장남수 회장	(10월 24일)

■ 신규회원



백경훈 (주)피전항공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4
고려빌딩 913호
- 전 화 : 02-362-6911
- 팩 스 : 02-730-1706
- 업 종 : 여행사
- 추천인 : 이경우 회원 (전 미안마 대사)



이찬일 서울에셋투자자문(주)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0-6
예림빌딩 301호
- 전 화 : 02-583-0568
- 팩 스 : 02-584-1882
- 업 종 : 금융서비스업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모임소식

- **이종1그룹(유상욱 회장 / 코리아나화장품)** 제218차 모임을 지난 9월 26일 인사동에서 가졌습니다.
- **인경회 9월 월례 경기(회장 이심 / 주택문화사)**를 지난 28일 한양.C.C에서 갖고 운동으로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의 9월 정기모임**은 26일 문종국 율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 연구원소식

- **양병무 원장 주식회사 장성군 출간**
양병무 본원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담아낸 책 <주식회사 장성군>을 지난 9월 28일 출간하였다. 작은 시골에 불과했던 전남 장성군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학습과 교육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장성군의 혁신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자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성군. 공무원이 경영하는 회사, 장성군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개발연구원 일본 도요타자동차 시찰단**
9월 25일~27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30여명의 회원사와 비회원사들이 일본도요타자동차 시찰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도요



타자동차 시찰단은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의 강사님으로 모셨던 한국도요타자동차의 오기소이치로 사장님의 협조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시찰단은 2005 일본국제박람회인 아이치박람회를 시작으로 나고야 도요타자동차 공장시찰 및 온천 관광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져 많은 회원들의 관심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 **한러친선협회(회장 유중하 / 이사장 장만기)**는 러시아와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13일(목) 12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글럽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청하여 오찬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러시아 주재 기업들과 러시아에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자체소식

- **동해 무릉제** 동해시는 10월 7일~9일까지 3일간 '동해무릉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해 무릉제는 첫날 식전행사로 산신제와 풍농제, 식후행사로 유명가수 축하공연이 개최되며 문화예술행사로는 국악, 동해가요제, 해군군악대의 공연과 백일장, 무릉서예대전 그리고 노인장기대회 등 9개 종목의 민속경기도 치러진다. 이밖에도 2008세계건강제협역스포 홍보를 위한 동해안 김치명인페스티벌, 건강체험관 운영, 학춤체조체험관 운영, 성인병 예방교육, 치아건강119단 등이 운영된다.



- **양양 송이축제** 자연산 송이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채취할 수 있는 제9회 양양 송이축제가 9월 30일~10월 4일까지 5일간 양양 남대천 둔치를 비롯한 양양군 전역에서 열린다. 송이채취 현장체험 및 양양송이의 우수성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의 장이 되는 이번 축제는 송이생태과학과 보물찾기 하듯 산속을 뒤져 양양송이와 양양 특산물을 찾는 송이보물찾기 등의 체험형 축제로서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송이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제천 의병제** 을미의병 진원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제천의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천의병제가 10월 5일부터 5일간 제천의 지양영당, 시민광장 등에서 펼쳐진다. 제천의병제는 을미년(1895) 12월 15일에 창의했던 '제천의병'이 친일의 심장부 총주성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창 의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축제이다. 주요행사로 는 길놀이, 고유제, 의병문화학술세미나, 팔도의병장 선별대회가 열리며 사진, 서예 등의 전시행사와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 **함양 물레방아축제** 함양군은 10월 14일~16일까지 3일간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제44회 물레방아 축제를 개최한다. 물레방아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축제에는 전국 서각전 사회와 사도 부인행렬, 수공예품 전시, 민예품경진대회, 남사당공연, 마당놀이 등의 행사가 마련되고, 연암 박지원 학술발표회와 지리산문학제도 함께 열린다. 또한 5천 동이의 능렁이호박을 준비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선물하는 '고향의 정 주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LMI & YOU

이번 호에서는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숙명여대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본 과정은 지난 6월 숙명리더십개발원과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교수진 10명으로 구성된 1차팀의 개강 이래 전교적으로 확산되어 총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퍼스널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준비한다

직위에 따른 권력이 곧 리더십의 상징이기도 했던 산업화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리더십 개발과 전체 역량을 통합하는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의 핵심은 '자발적인 동기부여'로서 리더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통제와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즉, 『퍼스널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지속적인 혁신이야말로 성공하는 조직의 경영전략이며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에서는 핵심인재의 역할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들이 조직의 핵심 자원이자 성과 창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주목한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은 "우리 대학의 풍부한 전문인력과 교육연구 자원을 활용해 21세기 사회발전에 필요한 리더십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리더십 선진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본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교육전문가를 위한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 과정(EPL)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를 점검해나갈 수 없는 단기과정들과는 달리 총 16주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EPL은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깨달음보다는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을 실천해나감으로써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적인 프로세스와 툴,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변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사 변화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기에 변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두려워 저항하다가 혹독한 결말을 맺기도 한다.

대학 개혁 추진을 선도해가는 숙명여대의 교수들이 퍼스널 리더십 개발을 통해 대학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드러운 힘을 발휘하여 신뢰와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를 배출해나가기를 바래본다.



▶ 이경숙 총장을 비롯한 11명의 교무위원들로 구성된 3차교육개강식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퍼스널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장만기 회장



▶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키워나가는 숙명리더십개발원과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교수진으로 구성된 1차 교육 진행 모습

■ LMI 소식

1. 숙명여대 4차 EPL 퍼스널 리더십교육 개강
 - 일시 : 9월 22일 오후 5시
 - 대상 : 특수대학원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및 교수진 10명
 - 지도교수 : (주)경쟁력평가원 정진호 원장

■ 교육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2202-8700 / Fax. 445-2086
www.lmikorea.com

Going Global

Reinventing for Today, Creating for Tomorrow

- 일 시 : 11월 15일(화) ~ 16일(수)
- 장 소 : 중국 북경 China World Hotel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대경제주간지 BusinessWeek는 20여년 전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매년 CEO Forum을 개최해 왔습니다.

1997년부터는 Beijing, HongKong, Kuala Lumpur, Bangkok, Seoul에서 개최해오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 3년 연속 Beijing에서 개최되어 홍콩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약 3천 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리더들과 함께 교류하는 이번 포럼에 한국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모시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Speakers

- | | |
|------------------------------|-----------------------------------|
| 조지 부시 前 미국대통령 | Stephanie Burns 미국 Dow Corning 사장 |
| 마이크 무어 前 영국 수상 | Vincent Cheng 홍콩 상하이 은행 회장 |
|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 | Victor Fung 홍콩 Li & Fung 그룹회장 |
| 존 메이저 前 영국 수상 | Vijay Thadani 인도 NITT CEO 외 |
| Craig Branigan 미국 Landsor 회장 | |

SCHEDULE AT-A-GLANCE

Day 1	DAY 2
07:30 Registration	08:45 Opening Keynote Address
08:30 Welcome and Introduction	10:00 Conversation Break
08:45 Opening Keynote Address	10:30 Plenary V
09:45 Plenary I	11:45 Plenary VI
11:00 Conversation Break	13:00 Lunch and Plenary VII
11:30 Plenary II	14:30 Plenary VIII
12:45 Lunch and Plenary III	15:45 Conversation Break
14:15 Plenary IV	16:00 Keynote Plenary
15:30 Conversation Break	17:15 Closing Keynote Address & "STARS OF ASIA" presentation
16:00 Keynote Plenary	18:30 Close of Forum
17:15 Closing Keynote Address	
18:30 Welcome Reception	

한국대표단 참가안내

• 전체일정

- 11월 14일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북경대,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방문 / 강연 및 질의응답 / 중국 현지 기업인과의 교류회
- 11월 15일 ~ 16일 : The CEO Forum 참가
- 11월 17일 : 천하제일성 C.C 골프 / 시내관광 또는 문화유적지 관광 / 북경 국제공항 출발

• 참가비

회원사 : 290만원 / 비회원사 : 320만원 (포럼 참가비가 US\$ 3,790이나 인간개발연구원 참가자에게는 50% 특별 할인해 드린 비용입니다.)

• 참가비 내역

포럼 등록비, 동시통역비, 항공료, 호텔비, 식비, 골프 그린피, 캐디피, 관광비, 현지방문 진행비, 가이드 비용 포함

• 신청마감 및 문의

10월 15일까지 선착순 30명 (직통02-445-1948 / 대표 02-2203-3500)



Keynote Speakers



His Excellency
Kay Rala Xanana Gusmão
President of Timor-Leste



The Honorable Fidel Ramos
Former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and Forum Co-Chair



The Honorable George Bush, Sr.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Bob Hawke
Former 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d Forum Co-Chair



The Right Honorable
Sir John Major, K.G. C.H.
Former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un Dr. Mahathir bin Mohamad
Former Prime Minister
of Malaysia



The Right Honorable Mike Moore
Former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and Former Director-General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Forum Co-Chair



The Right Honorable Jenny Shipley
Former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and Forum Co-Chair



The Honorable Carl Bildt
Former Prime Minister of Sweden
and Former United Nations Special
Envoy for the Balkans



His Excellency
Dr. Supachai Panitchpakdi
Director-General,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Secretary-General Designate, UNCTAD



The Honorable Dr. Arun Shourie, M.P.
Former Minister of Disinvestment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and Forum Co-Chair

주마간산 중남미 여행

윤백중 삼화비닐(주) 대표



페루 잉카문명유적지 마추피추의 공중도시 전경



남미문화투어참가자들



브라질 이과수폭포



멕시코 티오티와칸의 태양의 피라미드 전경

최근 국회 통상분과위 외 6~8개 분과위가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국가를 집중 방문하여 무역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 대외통상확대 구축과 남미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본원에서는 지난 8월 24일~9월 4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남미문화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천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남미지역을 둘러보는 한편 각 지역 한인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남미문화투어에 적극 참여해주신 윤백중 회원의 글을 통해 남미 지역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아스텍 문명의 멕시코》

멕시코는 중미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한국인의 멕시코 이민은 19세기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에 부족한 노동력을 한국인들이 충원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현재 교민 수는 2만여 명이고 체류자는 3천여 명에 이른다.

■ 멕시코 대표 도시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는 아스텍 문명의 흔적을 많이 담고 있으며, 평균고도 2308m의 고지대이다. 스페인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고대문명의 수도로 번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복 후 300년 동안 고대 아스텍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 과달루페 사원

멕시코시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멕시코의 수호신 과달루페 성모를 모시는 이 사원은 '뱀을 물리친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매일 수많은 신자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추기경이 집전하는 예배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성당 자리는 1531년 한 농부가 이 곳에서 금으로 장식한 푸른 외투를 입은 여자의 형상을 보고 신부에게 이야기하여 건립하게 된 성당으로 수세기 동안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했던 곳이다.

• 티오티와칸

티오티와칸은 멕시코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도시이다. AD 150년경에 세

워져 1908년에 복원된, 한 번이 225m이고 높이가 79m, 계단이 248개로 된 태양의 피라미드를 비롯해 달의 피라미드 등 많은 피라미드들이 산재해 있다. AD 2세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의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중의 하나이다. 내부는 미로처럼 방과 터널들이 이어져있는데, 급경사도 아닌 피라미드를 100여 계단 오르다가 겁이 나서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섬유 이민과 삼바의 나라 브라질》

아마존강, 이과수폭포, 커피, 축구로 잘 알려진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륙의 넓이에 있어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5위를 자랑한다.

■ 브라질의 대표도시들

• 상파울루

브라질에 있는 남미 최대도시이자 상업도시인 상파울루는 국민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며 3천여 개의 은행과 천 개가 넘는 제2금융기관이 경제의 중심지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상파울루에는 한인 상공회의소가 있어 한인 사회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 의류, 봉제의 80%를 한국 교포가 석권하면서 거대한 의류(섬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파나마만과 낭만으로 가득한 이빠네마 해안, 그리고 브라질 최고의 해안으로 꼽은 코파카바나 해안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다. 매년 2월 하순이면 브라질을 상징할 만큼 유명해진 리우 카니발이 개최된다.

• 대성당 메트로폴리타나

리우에 있는 대성당으로 건물이 성당 분위기와는 다르다. 1976년 지어진 이 건물은 높이가 80m, 직경 106m로 1층 건물이지만 34층 높이로 내부가 훤히 보이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부가 단조로우면서 띠 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있고 지하에는 작은 미술관과 성직자들의 묘지가 있다.

• 이과수국립공원

이과수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과수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 국경에 걸쳐 있는 세계 제일의 폭포이다. 이과수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는 '악마의 숨통(목구멍)'이라 불리는 곳으로 100m 밑으로 떨어지는 웅장하고 세찬 물살이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인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이과수폭포는 1억 2천만 년 전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옛날부터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성지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1986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된 이곳은 새들의 공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조류가 살고 있는데 그 종류가 수백 종이라 한다.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가 19세기 초 유럽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1810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세기말부터 유럽계 자본이 유입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계 이민이 많이 들어왔고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이민자들은 고향인 유럽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와서 제2의 유럽을 만든 셈이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리는 대도시이며, 스페인어로 좋은 공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을 항구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세련된 도회지 사람이란 의미를 합쳐서 '포르테노'라고 부른다. 이곳은 100여 개의 미술관과 극장, 박물관, 연주회장이 자리잡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로 사람들은 맛있는 항구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 레콜레타 묘지

고층빌딩이 섞여있는 이곳은 도시 한복판이면서도 나무들이 많고 녹음이 조화를 이룬 거리 풍경이 볼만하다. 이 근처에 레콜레타 묘지가 큰 공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공동묘지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근처나 시청 옆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일컬어 귀신과 태양의 도시라고 말한다. 이 묘지는 1822년에 문을 연 가장 유서 깊은 묘지로 영원히 잠든 아르헨티나인들의 최고급 유택이라 할 수 있다. 총 6,400기의 납골당 중에 70기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역대 대통령 13명의 묘도 이곳에 있다. 묘 중에는 유명한 것도 많은데, 뮤지컬 '에비타'로 알려진 페론 전 대통령의 부인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

• 성모 필라르 성당

레콜레타 묘지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성당으로 층수가 있는 높은 탑은 라플라타강을 가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 강이 보이지 않는다. 도시 한복판에 뉘서나는 납골공원이 자리잡고 그 옆에는 성당이 있고 앞에는 넓은 공원 그 앞에는 고급 식당을 비롯한 변화가 한데 어우러진 도시, 그래서 귀신과 밤낮으로 함께 생활하는 도시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어느 작가는 말했다고 한다.

《잉카 문명의 유적지 페루》

고대의 높은 문명을 일으켰던 남미 최대의 잉카 제국 숨결이 살아있는 페루는 약 3천 년 전에 현재 우아라스 지역인 북부 안데스의 차빈문화를 기초로 모티카, 나스카, 티무라 문화가 이어졌다. 11세기 말 중부 안데스 지역에서 발원한 잉카족은 12세기 초반에는 수도 쿠스코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에 걸쳐 약 5천km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잉카문명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 페루의 대표도시 리마

태평양 해안가에 있는 페루의 수도 리마는 스

페인 통치 이전과 메스티로 전통에서 유래된 요소들이 풍부하다. 고대 페루인들은 건물을 자연 경관에 조화시키는 훌륭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리마 대성당이며 리마 산프란시스코 교회와 수도원도 중요시한다.

• 대통령 궁

대통령 궁에 들어가 대통령의 집무실과 국무회의 장소, 외국인 접대실 등 다양한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다. 궁의 내부는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을 본 떠 지은 곳이 많다고 한다. 대통령이 사는 관저도 궁 내부에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 시설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석 비서관의 투자유치 설명도 들었다. 궁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은 1824년 독립전쟁 때 입었던 'HUSARES DE JUNIN'이라 불리었던 군복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한다.

■ 잉카문명 유적지

• 쿠스코

이곳은 잉카제국의 수도였다. 쿠스코란 캐추아어로 '배꼽(중앙)'이란 뜻이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잉카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에게 쿠스코는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곳에는 잉카문명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으며, 그들은 하늘은 독수리, 땅은 푸마, 땅 속은 뱀이 지배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한 정신세계를 반영하듯 도시 전체가 푸마 모양을 하고 있다.

• 마추피추

마추피추는 잉카문명의 자취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세계적인 유적이다. 해발 3200m 정상에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절벽에 숨어있는 요새 도시 마추피추는 1911년 미국의 하이람 빙엄 교수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산 속에 묻힌 채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해서 '잃어버린 도시' 또는 '공중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 건축 기술도 놀랐을 정도의 커다란 돌을 다듬는 정교한 솜씨이다. **人間**



끌어가는 삶, 끌려가는 삶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추구에 있어서 평등할 권리가 있다. 더욱이 시

간이야말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간은 사랑의 정신, 영혼의 호흡 등과 같이 인생을 만드는 재료이다. 꿈을 추구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노력에 따른 보상을 즐기게 해주는 것도 바로 시간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시간관리에 달려있는 셈이다. 시간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면서 '끌어가는 삶'을 산다. 반면에 시간관리에 미숙한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끌려가는 삶'을 산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바쁜 것이 권위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중요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쁠 수밖에 없다. 하기가 실업자도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 일진대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저렇게 살려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겁지겁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시간도둑이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 잦은 회의 시간, 찾아가야 할 경조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요인들은 자신의 업무습관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얼마든지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매일 아침 오늘의 할 일을 최우선활동, 중요한 활동, 전화 걸기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면 시간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계획이 철저할수록 실행단계에서 요구되는 시간은 줄어든다. 하루, 일주일 등 단기계획뿐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울 경우 시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보다 50%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60%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급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시간관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원칙을 중시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것도 시간관리의 필수조건이다. 원칙이 있어야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원칙이 없고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 패턴이 달라지면 시간관리는 그 만큼 산만해지게 된다. 아울러 단순하게 사는 것도 시간관리에서 대단히 유용한 항목이다. 삶이 복잡하면 시간관리도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달성시한을 정하고 지키는 것도 시간관리에서 중요하다. 일에 는 맺고 끊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달성시한은 신호등처럼 일을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능하면 달성시한 내에 주어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표가 성취되고 나야 다음 단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까닭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면 권한위임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관리 (management)에 대한 정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관리도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적절한 일을 끝내게 하는 것이다. 정형적이고 사소한 일은 권한위임을 해야 한다.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한김벌리의 문국현 사장은 NGO활동과 정부지원활동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보면 바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MBO(management by objective)와 MBE(management by exception)가 그 비결이다. 목표관리를 통

해 부하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전략적이고 예외적인 일에 시간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관리를 유연하게 해나가고 있다.

불필요한 시간요구에 대해서는 No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거절을 하지 못해 시간에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다. 거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어떤 어머니가 5세 된 아들과 놀아주는데 온통 시간을 빼앗겨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30분 동안만 자기 방에 가서 놀라고 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기가 무섭게 아들이 계속해서 물어대는 바람에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행했다. 아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 어머니가 독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방에서 잘 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다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과 일 사이에는 자투리 시간이 발생하므로 이 시간들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타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면 시간의 생산성은 더욱 올라가게 된다.

〈시간관리 10계명〉

1.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2.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3. 원칙을 중시하고 삶을 단순화한다.
4. 달성시한을 정하고 지킨다.
5. 목표관리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다.
6. No라고 단호히 지혜롭게 말한다.
7.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8. 기록을 중시하고 메모를 습관화한다.
9. 전화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0. 아무리 바빠도 휴식시간을 갖는다.

그 밖에 기록을 중시하고 메모를 습관화하는 노력, 전화와 이메일의 적극적인 활용,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노력도 시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주자학의 구축자인 주자(朱子)가 학문을 권한 시의 의미를 유념하면서 주도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끌어가는 삶'을 가꾸어 보자.

少年易老 學難成(소년이노 학난성), 一寸光陰 不可輕(일촌광음 불가경).

未覺池塘 春草夢(미각지당 춘초몽), 階前梧葉 已秋聲(계전오엽 이추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연못가의 봄 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리는구나. (人間)

나의 노계(老計)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나는 사람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중유락(苦中有樂)'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원래 즐거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을 수 있겠는가.

"그럼 늙고 죽는 것도 즐겁단 말ियो?" 아마 이런 반론이 있을 것이다. 글썄, 늙고 죽는 것이 꼭 즐거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의미를 잘 안다면 얼마든지 달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장자(莊子)는 아내가 죽었을 때, 항아리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죽고 사는 것을 항상 보니, 이제 전혀 눈물이 없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인생을 즐겁게 보내려면, 일정한 계획과 수련이 필요하다. 중국 송(宋)나라에 주신중(朱新仲)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인생에는 다섯 개의 계획(五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생계(生計), 둘째는 신계(身計), 셋째는 가계(家計), 넷째는 노계(老計), 마지막 다섯째 사계(死計)가 그것이다. 생計는 내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고, 身計는 이 몸을 어떻게 처신하느냐의 계획이며, 家計는 나의 집안,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老計는 어떤 老年을 보낼 것이냐에 관한 계획이고 死計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이냐의 설계를 말한다.

"당신에게도 老計가 있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있지요."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यो?"라는 물음에는 '소이부답(笑而不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사는 집 이야기를 한다면 그 속에 나의 대답 일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달동네로 유명한 봉천동에 살고 있다. 25년 전, 나는 관악산을 내다보는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대지를 사서 집을 지었다. 당시에는 주변도 비교적 좋았고 공기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집 주위는 그때와는 전혀 판판이 됐다. 단독주택은 거의 다 없어지고 주변에 5층 짜리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주차도 어렵고, 지하철에서 이 집까지 오자면 가파른 언덕길을 허덕이며 올라와야 한다. 처음 오는 사람 중에는 '이 집이 정말 조순의 집이나, 동명이인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25년을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나밖에 없다.

아이들은 날보고 이사를 가자고 한다. 좀더 넓은 곳, 편한 곳으로 가자고 한다. 자기들이 모시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한결 같다. "여기가 어떻다고 이사를 간단 말이나.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 다소의 불편은 참고 지내야지, 사람은 너무 편해도 못 써. 어딜 가도 먹는 나이는 막을 수 없고, 인생의 황혼은 짙어지는 법. 지난 25년의 파란 많은 세월을 이 집에서 사고 없이 지냈고, 지금도 건강이 유지되고 있으니, 그만하면 됐지. 내겐 이 집이 좋은 집이야."

이 집에는 좁은 대지에 나무가 많다. 모두 내가 심은 나무들이다. 해마다 거름을 주니, 나무들은 매우 잘 자라서 이제 이 집은 숲 속에 묻혀 버렸다. 감나무엔 월등히 좋은 단감이 잘 열리고, 강릉에서 가지고 온 토종 자두나무는 꽃도 열매도 고향냄새를 풍긴다. 강릉에서 파온 대나무도 아주 무성하고, 화단은 좁지만 사계절 꽃이 핀다. 이 집과 나무, 그리고 화단은 아침저녁 내게 눈짓한다. "당신이 이사를 간다구요? 가지 마시오!" 지난 25년의 파란이 압축된 이 애물단지! 내게 이런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人間**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KYOBO
교보문고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전화:1544-1900

광화문점:1544-1900 강남점:1544-1900 부산점:(051)806-3501 대구점:(053)425-3501
인천점:(032)455-1004 대전점:(042)222-7891 부천점:(032)663-3501 성남점:(031)752-1323 안양점:(031)446-3501

GE Money

GE Money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모든 고객의 미래는 똑같이 소중한합니다. GE Money는 모든 고객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기에 대출이 아닌 고객에 대한 투자라는 새로운 생각으로 대출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 GE Money

www.gemoney.co.kr [문의전화 1588-8881]



GE imagination at work

상상을 현실로

- GE Money는 GE의 소비자금융 전략브랜드입니다
 - GE는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AAA신용등급의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 2005년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Global Most Admired Companies)'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한국 GE Money에서는 함께 일할 전문 대출 영업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접수 sales.korea@ge.com)